

이룰 수는 없었지만 잊을 수 없는

해.양.강.국의 꿈

### *The silk voyage*

《바다의 실크로드》는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공한 선후배 교수들이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라카해협이 화제가 되었다. 16세기 말라카해협은 서쪽(인도·유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온 상인들과 동쪽(중국·베트남)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을 타고 온 상인들이 모여들던 곳이었다. 특히 이들 상인의 주목적은 향료였다. 인도네시아군도(향료군도)에서 재배한 향료들이 말라카해협에 모였다가 유럽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다.

이곳에 위치한 말라카 왕국은 자연스럽게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잇는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12월에서 4월까지는 양쪽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멎는 시기였다. 이미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말라카해협 주변을 돌며 활발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했다.

“한창 융성할 때는 84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좋다. 우리는 지금 토막토막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아 풀코스로 연결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 하고 연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을 모은 교수들은 지난 2000년 가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양실크로드 연구회' 워크숍에 들어갔다.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원고 방향과 분량, 일정 등을 협의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참여한 사람이 프롤로그를 쓴 외교안보연구원 배극찬 교수와 에필로그를 쓴 외대 사학과 임영상 교수였다.

"배극찬 교수는 정치학자로서 동아시아 시대에 동북아와 동남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마침 이 둘을 묶는 동아시아의 동질성을 찾을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작업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임영상 교수는 서양사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시베리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특히 바다가 단지 바다의 교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철의 실크로드와 연결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철의 실크로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대단하다. 영국이 프랑스와 연결하는 도버해협에 해저터널을 뚫었듯이 일본 역시 철의 실크로드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해협 아래로 해저터널 뚫기를 희망하고 있을 정도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양과 관련해 읽을 만한 책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글을 쓸 필자가 없다는 불

만을 표시하곤 한다. 하지만 양 교수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필자를 찾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제 주변만 해도 100명은 넘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연구의 질이 낮고 발전이 안 되는 것은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양연구는 그 범위가 방대합니다. 해양의 역사, 자원, 미래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분화된 분야마다 연구할 사람이 많습니다. 단지 이들이 모여 함께 연구할 계기가 마련이 안 되는 거죠."

일례로 양 교수가 주도적으로 한국외대출판부에서 내고 있는 동남아학총서 중에 《동남아 - 중국 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다. '동남아와 중국과의 교섭관계', '중국과 동남아 각국과의 관계', '21세기 신질서 속의 동남아와 중국의 관계 전망' 등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를 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동남아 중국 교섭관계>만 해도 고대·중세·근대·현대 등 범위가 넓다. 이러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각기 다른 전공자들이 머리를 맞대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현재 13권의 동남아총서에 참여한 연인원만 140명이 넘는다).

《중국 해상 실크로드의 진원지》를 쓴 김상범 연구원만해도 오히려 이 글을 쓰면서 배운 게 더 많았다.

"통상 중국의 대외관계를 연구할 때 당대까지는 서북관계, 당대 이후는 동북관계에 주목하는 데 비해 남쪽 노선에는 주의를 많이 못 기울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막상 연구를 해보면 남송과 북송 시대를 넘어가면서 향료를 가장 많이 소비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남아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자기 분야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학자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계기'가 많지 않다. 좀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연구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꼭 연구비가 아니어도 원고료조로 10명의 연구자에게 3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책 한 권을 출간하려면 최소한 6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선뜻 내주는 사람이 없다. 이번만 해도 누구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알고 싶다는 순수한 뜻을 가지고 선후배 연구자들이 모인 것이다.

양 교수는 현재 세계는 거대담론이 끝나면서 경제전쟁시대로 재편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문명 충돌론》의 저자 새뮤얼 헌

팅턴의 논리를 빌리자면 실크로드로 시작해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넘어간 세계주도권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아시아 주도의 세계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이 필요하다.

“미국은 그 자체로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미 경제적으로 한 나라나 다름없습니다. 아시아 역시 덩치를 키워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입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미국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친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아시아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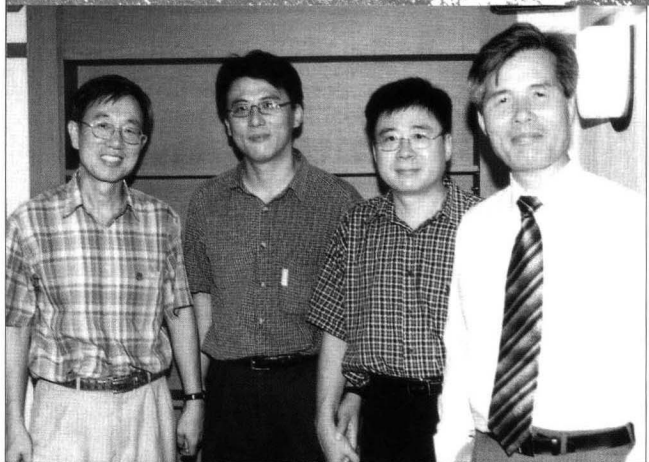
얼핏 동아시아는 문화적 역사적 공감대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듯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알기 이전에 바다의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 동아시아와 교역을 하며 문화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 상대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북아에 있는 자본과 기술, 동남아에 있는 자원, 노동력, 시장이 서로 짝짓기를 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학과를 설립하기에 조그만 도움이 될까 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수준은 아직 멀었지만 양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먼 데서 친구를 찾으려 할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익이 있는 곳이 동남아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에서는 중국 이전 인도문화가 있었다. 김수로 왕 부인이 인도인이었다는 설을 차치하더라도 가야국, 신라는 인도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바다의 실크로드의 한 끝으로서 같은 문화권에 속했었다. 물론 그 멀리 있는 인도를 누가 부른 것은 아니었다. 하멜이 그랬듯 바람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렸다 닫히는 바닷길을 따라 온 것이다.

“인도문화의 번성과 중국문화의 번성은 6세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한 게 아니라 인도 등 동아시아와 끊임없이 교역을 해왔습니다. 어느 순간 중국문화권에 속한 이후로 이러한 기억을 강제로 지우려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는 첫사랑입니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삼면이 바다라는 사실을 지겹도록 들어왔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므로 해양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바다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적은 없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힘을 쏟다보니 바다를 개발해야 한다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은 금방 잊혀져 버렸다. 자원과 환경, 거주공간 등 과장하자면 더 이상 육지에서 바랄 게 없는 게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후손을 위해 바다를 물려줘야 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임영진, 김상범, 이은규, 양승훈 씨.

이 책은 미완이다. 원래는 한국과 더불어 일본, 스페인도 참여해야 폴텍스트가 되는 내용이었다. 스페인은 은을 통해 중남미와의 교역을 연결했던 나라로 한창 번영을 누릴 때는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일본 역시 해양 강국이었다. 사실 현재 우리보다 연구 인력과 인프라가 풍부한 곳이 일본이다.

‘해양실크로드연구회’ 팀은 지금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이들 양국을 포함시켜 보다 완성도 높은 바다의 실크로드를 완성할 계획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